ELIO'S LITTLE DISCOVERIES

Same Stars, Different Names

같은 별, 다른 이름 · 하늘을 담요로 옮긴 까닭 말하기



12세 · Day 050 · 함께 읽기 · 4장면



Mum came back with six white pebbles from the garden. “Let’s bring the stars down where we can all see them,” she said. Together they set the pebbles out on the dark blanket, copying the group above.



Elio traced his fish in the air just above the pebbles: nose, back, belly, fins. Bori watched his paw. “Oh,” she said slowly. “Now I can spot your fish.” Then she traced her duck, and Elio found it as well.



Now they could each see both pictures, and that made it worse. “But which one is it really?” asked Bori. “It cannot be a fish and a duck at once.” Elio frowned at the pebbles. He wanted one answer too.



Mum lay back on the blanket. “Look closely,” she said. “Are there any lines up there?” They looked. There were six bright points and a great deal of dark sky. “We are the ones who add the lines,” said Mum.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저녁 하늘에서 별 여섯 개를 함께 세어 보고, 이 별들을 이으면 무엇처럼 보이는지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들어 봐요.

함께 읽을 때

엘리오와 보리가 같은 별을 서로 다르게 본 장면에서 잠깐 멈추고, 같은 별이 각 그림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짚어 봐요.

생각 나누기

숟가락은 왜 좋은 이름이 되지 못했나요? 보리가 말한 기준을 찾아보고, 물고기와 오리와 주전자가 모두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생활에서

맑은 밤에 별을 보거나, 종이에 점 여섯 개를 찍어 각자 다른 그림으로 이어 봐요. 별자리 이름을 외우는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